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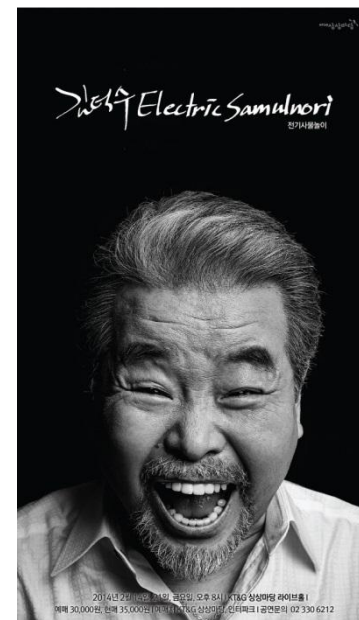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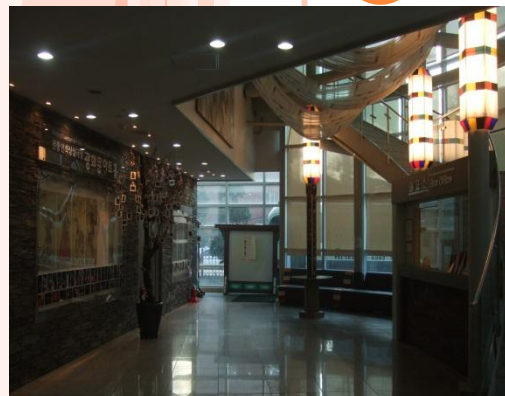
김덕수

안 숙선

한울림예술단

K' ARTS IN
ONE 컴퍼니

공연자료



작품소개 - 신명 김덕수 명인을 만나다. (사물놀이레파토리)

1. 문굿 비나리

사물놀이 공연은 항상 문굿과 비나리로 시작한다. 문굿은 객석을 통해 무대로 입장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공연장에 온 사람들과 비로소 같은 공간의 기를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나리는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엮어 부르는 것인데 그 사설은 제의성이 매우 강하다. 비나리는 사물놀이의 공연에서 항상 맨 앞에 놓여지고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2. 삼도설장고가락(15분)

삼도설장고가락은 과거 경기, 충청도와 호남, 그리고 영남지방의 삼도에서 명성을 날리던 장고의 명인들의 가락을 모아 사물놀이가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4명 혹은 그 이상의 연주자가 네 개의 파트로 분리하여 장단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한 파트의 독주형식의 장고 연주를 나머지가 받치면서 이끌어 나간다.

설장고가락은 연주자 전원이 앉아서 연주하여 음악의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장단의 다양함과 매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3. 삼도농악가락(15분)

사물놀이는 뿡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악기로 빚어내는 기운생동의 세계이다. 그리고 삼도농악가락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사물놀이의 대표곡이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기운이 네 가지악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해지며, 한국인의 신명과 조화 그리고 역동성이 표출된다.

멘트

4. 판굿 (30분)

삼도설장고가락과 삼도농악가락이 앉아서 연주하면서 음악적(혹은 청각적) 요소를 극대화했다면, 판굿은 상모를 돌리며 여러 가지 대형을 연출하는 춤의 시각적 요소가 강한 사물놀이 레파토리이다. 따라서 풍물패의 진짜 재미는 바로 판굿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굿 끝 부분에는 언제나 각 악기를 가지고 혼자서 연주하며 춤추는 개인놀이가 있는데, 앞부분이 여러 대형과 현란한 동작을 통해 각 연주자들의 조화와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개인놀이는 각 잭이들이 개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판굿의 하이라이트이다.



연주사진



작품소개 - 김덕수 전통연희공연 “판” (한국의 고유의 가.무.악)

[프로그램]

1. 축 원

예전부터 한국의 신명을 담아 관중과 광대가 함께 어우러져 판을 벌릴 때는 항상 길놀이로 시작된다. 길놀이에 이어 광대들은 관중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축원에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전통연희의 뿌리인 무속을 가(歌) · 무(舞) · 악(樂)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예술로 승화시킨다.

2. 일 고 화 락 (20분)

한국은 진정 ‘북의 나라’ 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다양한 기운과 모양새를 지닌 수백의 장단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가죽 악기들이 있다. 그 악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자 특징은 악기의 면이 수직적으로 펼쳐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지극히 한국적인 면이 수직적으로 펼쳐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지극히 한국적인 울림이 탄생된다. <일고화락>은 한국의 다양한 가죽악기와 펼쳐는 장엄하고도 극적인 대향연이다.

3. 판소리-심청가중 심봉사눈뜨는대목 (12분)

소리는 한국전통성악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긴 노래이다. 조선중기 이후 남도지방 특유의 곡조를 토대로 발달한 광대 한명이 고수(鼓手) 한명의 장단에 맞추어 일정한 육성(肉聲)과 몸짓을 곁들여 창극조(唱劇調)로 두서너 시간에 걸쳐 부르는 민속예술형태의 한 갈래이다.

4. 삼도농악가락 (15분)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악기로 빚어내는 기운생동의 세계이다. 그리고 삼도농악가락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사물놀이의 대표곡이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기운이 네 가지 악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해지며, 한국인의 신명과 조화 그리고 역동성이 표출된다.

5. 희노애락(喜怒哀樂)

민중들에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 전해내려 왔으며, 민중의 생활을 담아낸 단순한 노래의 차원을 넘어서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적인 노래이다. 판에서 부르는 ‘한오백년’, ‘뱃노래’를 통해 민중들의 애환과 삶의 즐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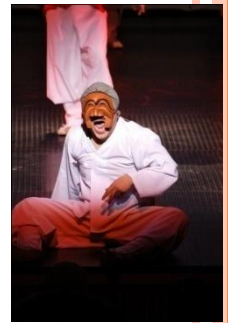
움을 함께 표현하며, 민요와 함께 펼쳐지는 전통무용은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6. 판 놀음 (30분)

판놀음은 광대, 관중이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명을 피우는 놀이이다.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도된 참여에 따른 즉흥성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신명이 발생되며, 그로 인해 발생된 엄청난 신명은 축제적 성격으로 극대화되어 불거리, 즐길 거리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연출된다. 일곱 마당으로 이루어진 판놀음은 탈춤, 소고놀이, 열두발 놀이, 버나, 진도북춤, 사물판굿 등 다양한 연희들이 한마당에서 어우러지며 큰 판이 벌어진다.



연주 사진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와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인 정준석을 주축으로 다양한 연령의 구성되었으며 노련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통해 세대간, 전통과 현대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음악이자 월드음악을 추구하는 밴드이다. 전통의 사물놀이와 블루스, 소울, 락음악이 각기 다른 악기로 정면충돌하여 만들어내는 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며, 전통의 수호자이자 새로운 선구자인 밴드이다.



작품소개



1. 길놀이 5분
2. 진격 3분
3. 악셀레이터 1분
4. 육자배기, 흥타령 10분
5. 토끼이야기 10분
6. 얼싸절싸 5분
7. 취한다, 취해 4분
8. Hey 4분
9. 가시리 6분
10. 덩덕쿵 10분

연주 사진



김덕수사물놀이와 어울림앙상블 (사물놀이&재즈) “溫故知創新 (온고지창신)”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의 연주자로서 전통공연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와 소통했던 음악적 활동의 음반 속의 연주곡 외주로 하여 보여주하고자 한다. 전통 가무악과 재즈의 선율을 오고가며 판소리, 탈춤, 연희등을 구성하여 전통음악의 선구자적인 모습을 다시한번 김덕수와 한울림연희단, K'ARTS 컴퍼니와 선보인다.

인/사/말

한울림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명 김덕수입니다.
평라리·정·장구·북 등 4개의 악기로 공간사양에서
첫 소리를 헛차게 울린 뒤 어느덧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물놀이”는 1978년 2월 (제1회 공간 전통예술의 밤)에서 최초로 정악연단의 예술음악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당시 민족학자 심우성 선생님께서 “사물악기로 신나게 놀아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한울림에서 내려주신 평라리·정·장구·북의 울림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공연은 물론이고 현재 초·중·고·대학교에서 워크숍을 통한 사물놀이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사물놀이는 음악교과서의 체계적인 사전에 등재되었고, 서양 오케스트라와 협연 이루어지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두 번씩은 두드려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악기이며, 음악이 되었습니다.

사물놀이는 오래전부터 전승되던 전통음악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전통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창작음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사물놀이로 원호하며, 울려이던 지난 3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군요.

오늘 이 자리는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새롭게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70년대 말 溫故知新(온고지창신)이라는 뜻에서 사물놀이가 탄생된 것처럼, 전통의 깊은 맛과 현대인의 정서와 소통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고지창에 창(만들다, 창조하다)의 의미를 더한 “溫故知新(온고지창신)”으로 이시대의 월드뮤직을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물놀이가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문화예술계 선생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많은 후원 아까지 없었던 사회 인사, 우리고 동지들, 아무말없이 믿고 따라 왔던 후배와 제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만든 젊은 후학들과 한자리에 세계 뒤편 베풀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어울림극장, 노원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2013. 11. 6 김덕수 올림



雲/雨/風/雷

어느판

문긔 김놀이 삼도농악가락
- 사물놀이 한울림 -

전사의 영혼 (Spirit Warriors)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김나래

점점더욱더(More than ever)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김나래

울림(O-lim)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김나래

긴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전영랑

명상(Meditation)

- 어울림 앙상블 - 무용 박솔이

far horizon

- 어울림 앙상블 -
무용 박솔이 최예지

육자배기, 흥타령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박종호

토끼이야기(Rabbit Story)

- 어울림 앙상블 - 소리 박종호

Another step to the sky

- 어울림 앙상블 -

round up

- 어울림 앙상블 -

출/연/진

어울림



김덕수 문상준(평라리) 송동운(정) 이준형(북) 김기희(가야금) 성형경(대금)



김승터(해금) 신세희(피아노) 김재호(베이스) 정준식(기타) 박종호(소리) 전영랑(소리)



김나래(소리) 박솔이(무용) 최예지(무용)

한울림



홍윤기(장구) 황영권(평라리) 현승훈(북) 권설우(평라리) 안병진(정,소고) 표한진(징)



조갑동(장구) 장미나(장구) 주영호(북) 이의태(살판) 이주용(살판) 이초혜(죽영울)



연주사진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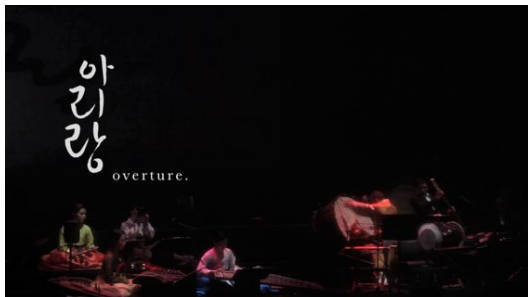
나눔과사랑-
한·함의콘서트라마

겨레의 혼 아! 아리랑 기획의도

우리의 혼 속에, 몸 속에, 가락 속에 스며들어있는 바로 그 아리랑, 그 아리랑을 이제, 가락으로, 몸짓으로 만나본다. 이제, 우리 곳곳에 있는 아리랑이 너와 나의 몸이 되어 한 자리에 올린다. 홀로 아리랑이 아닌, 이제 미래의 지평을 여는 나눔 아리랑으로 오늘 무대에 올라간다.

김덕수 사물놀이와 K' ARTS IN ONE 컴퍼니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아리랑의 탄생에서부터 힘찬 미래를 향한 한국의 날개짓이 시작된다. 그들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바람을 불러온다. 그 바람을 타고 아리랑의 소리가 들린다! 오늘 이 무대는 “아리”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드높은 기상을 연주에 담고, 어깨춤이 들썩이는 우리네 몸짓이 서로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어우르고자 하는 기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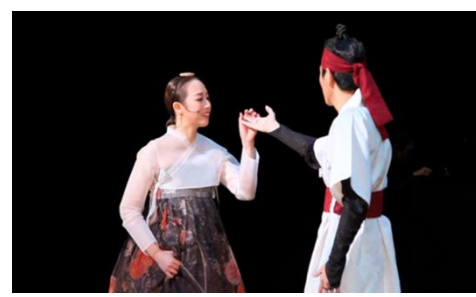
너와 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다양한 복합 장르로서 엮어내어 탈과 사람, 가락과 몸짓 그리고 동서양의 만남을 보여준다. 이제, 그 날아오르는 장으로 가보도록 하자.



1장. Overture 아리랑



2장. 탄생 역사속의 아리랑.태초의 탄생. 역사와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무용과 노래. 태아의 성장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동네 사람들의 축제의 장.



3장. 사랑 두 사람의 그림고 벽찬 사랑의 감정을 해학이 가미된 도깨비들의 놀이로 표현



4-1장. 전쟁 전쟁을 예견하는 소리. 양 진영간의 대결과 혼돈, 갈등.대북의 울림으로 시작된 여인들의 삼고무와 북의 합주.



4-2장. 이별 민초들의 아픔, 분단의 쓰라림, 전쟁으로 지친 군중. 죽음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늙은 위로하는 독무와 군무의 살풀이춤.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낭군 재회의 기쁨을 화합의 아리랑으로 표현.



5장. 해원상생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듯,
신명의 유희판이 펼쳐진다.
버나, 지전, 살판, 판굿 등.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서양과 국악의 만남,
연희+서사+판타지+음악

연주사진



연주사진





여름방학 특집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 연희극



전래동화 연희극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 춤, 음악, 미술, 재주 부리기 등

다양한 전통공연예술로 만들어진 신개념의 공연입니다. 전래동화 연희극은 보는 재미뿐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음악과 노래 그리고 몸짓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입니다.

사물놀이 한울림연희단과 함께하는 “덩덕콩 전통연희 체험콘서트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물놀이 장단

세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우수한 문화(농악,판소리,아리랑)을 만나다.

직접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오감만족 콘서트 !

1. 길놀이(5분)

사물놀이 공연은 항상 문굿 시작하여 길놀이 이어진다. 문굿은 옛부터 밖에서 복을 몰고 간다는 의미이며,

객석을 통해 무대로 입장하며 연주자들의 신명나는 덩덕콩 장단에 맞추어 관객은 박수장단과 함께 즐기는 길놀이로 이어진다.

2. 삼도농악가락(15분)

사물놀이는 쟁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악기로 빚어내는 기운생동의 세계이다. 그리고 삼도농악가락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사물놀이의 대표곡이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기운이 네 가지악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해지며, 한국인의 신명과 조화 그리고 역동성이 표출된다.

3. 사물장단배우기(5분)

사물놀이 네가지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의미와 악기를 직접 듣고 사물놀이 귀에 듣는 소리를 구름으로 표현하며 아카펠라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사물놀이 한울림연희단과 함께하는 “덩덕쿵 전통연희 체험콘서트

4. 판소리도 만나고 아리랑을 배워보다 (20분)

판소리는 한국전통성악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긴 노래이며 서양의 뮤지컬이다.

명창과 고수 2인으로 구성되어 이야기극을 펼쳐 보이는 것으로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에 2003년 등재된 유산을 듣다.

아리랑 2012년 등재되어 세계인들의 한국의 대표하는 민요이다.

각도의 대표적인 소리를 들어보고 따라 배워보는 장이다.

5. 판 놀음 (20분)

판놀음은 광대, 관중이 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명을 피우는 놀이이다.

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도된 참여에 따른 즉흥성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신명이 발생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신명은 축제적 성격으로 극대화되어 볼거리, 즐길 거리로 전혀 다른 세계가 연출된다. 일곱 마당으로 이루어진 판놀음은 소고놀이, 열두발 놀이, 버나, 사물판굿 등 다양한 연희들이 한마당에서 어우러지며 큰 판이 벌어진다.



사물놀이 한울림연희단과 함께하는 “덩덕쿵 전통연희 체험콘서트



교육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 체험학습

국내 거주 외국인들 대상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 에서

상시로 진행하고 있는 전통예술체험프로그램

“얼쑤절쑤 탈춤 체험”



한국의 각 지역 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전통 장단과 함께 배우는 한국의 춤을 통해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익히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탈춤 놀이를 통해 대동의 한마당을 이루는 한국인의 정서를 체험 할 수 있다.

“뎡뎡쿵따쿵 사물장단 체험”



사물놀이의 팽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전통 타악기가 만들어내는 장단과 함께 한국의 신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다. 사물 악기와 친해지기(악기의 의미), 장단 배우기(구름 따라하기, 악기치는 법 배우기, 장단배우기), 다같이 합주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

교육프로그램

부여 사물놀이 교육원



1994년 충남 부여군 폐교를 사물놀이교육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 캠프로 운영
하고 있으며, 기업및 교원연수 등도 실행하고 있음.
연간 1,000명정도가 국내외 사물놀이동호인들이
배우는 교육원을 운영중.

교육프로그램

2011년 수행 프로그램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2011년 8월 4일 _ 무주
세계태권도 연맹, 태권도진흥재단 주최

세계에서 모인 태권도 수련 청소년 200명 대상
사물놀이 장단 교육 및 캠프 대동제 진행



<2011 포스코 전통문화체험캠프 & 해외연정대 _ 베트남편>

2011년 8월 17일~19일 _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2011년 8월 23일~26일 _ 베트남 호치민

포스코, 여성가족부, 한국메세나협회 주최 주관
다문화 가정 어린이 대상 캠프에서 탐춤, 장단 교육

베트남 현지에서 고민들과 합동 공연



축제기획

세계사물놀이계류기한마당

- 1989년 시작, 올해 23년째를 맞이하는 사물놀이 연주자, 동호인들의 축제
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국내 전통공연예술 최고 권위의 경연대회
- 해외 12개국의 외국인과 재외 동포가 참가하는 글로벌 축제
- 매년 국내외 100여개 단체, 약 600여 명의 사물놀이 연주자 참가
- 전문 연주인과 아마추어 연주인의 경연대회, 국제네트워킹, 사물놀이 체험 등
다양한 면모를 갖춘 국내 최대의 사물놀이 축제



천지진동 페스티벌(2011~2014)

- 2011년 10월 3일 _ 고양 별마리경기장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
- 전국체전 성공개최기원
- 전국의 2011명 사물놀이 연주자 김놀이
및 합동 연주
- 기네스북 기록 등재 예정



법인 소개

법 인 명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이 사 장	안 속 선 예술감독 - 김덕수
설 립 일	1993.4
소 재 지	본 사 :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흥연리 329 서울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84-1 광화문아트홀
전화 번호	(대표) 02-2232-7952 / (FAX) 02-2232-7955
업태/종목	서비스, 공연음악공연
사업 분야	공연 및 문화기획사업, 연구교육사업, 문화상품사업, 전통문화 해외보급사업, 국제문화사업,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직 원 수	20명 (행정직원 및 예술단)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예술을 연구, 교육, 보존, 창작, 공연함으로써 안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여 전 인류와 더불어 공유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물놀이 탄생 이후 지난 35년 간 문화예술적 성과와 공익을 위한 문화사업은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는 최고의 민간외교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업 내용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정립
국내외 활발한 워크숍 진행
충남 부여 교육원 운영



공연기획

국내외 연간 150여회 공연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운영
한울림 연희단 매니지먼트

연구교육사업

국제축제

세계사물놀이대축제 주관
월드드럼페스티벌 기획
세계적 수준의 축제 기획

예술감독



김덕수와 사물놀이는 동격이다.

부친 김문학(벽구놀이의 명인)으로부터 남사당 예인의 기질과 재능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장고를 다루었던 그는 1959년 불과 일곱살의 나이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받아 일찍부터 '장고의 천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양도일, 남운용, 송순갑 선생에게 장고와 쇠가락을 사사하고, 국악예술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국악이론과 실기를 공부한 김덕수는 졸업 후 여러 전문 전통예술공연단체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일본, 미국 등 전세계 50개국을 순회 공연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주활동과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결국 1978년 "사물놀이"의 창단으로 이어진다. 이 일은 한국 음악사를 새롭게 장식하는 전기가 되었으며, 김덕수 자신은 조선일보가 선정한 "해방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단지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울림의 예술감독으로, 세계 유수의 타악 음악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또한 중요 국가 문화 행사의 연출자로서, 문화예술, 예술교육 전반에 걸쳐 완숙한 예술적 역량을 널리 펼치고 있다.

현재활동

현 전통문화벤처기업 (주)난장컬처스 대표이사

현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 예술감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교수 및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현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수상경력

1959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61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인상

1995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1998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을 빛낸 50인” 선정

2001 제 4회 일맥문화대상 나라빛냄상

2002 한국방송대상 개인상(국악인상) 수상

한 · 일 월드컵 공로 대통령상 표창

일 · 한 문화교류기금상 수상

2004 민주평화통일 유공자문위원회 의장 표창 대통령상

2007 국민훈장 은관문화훈장 표창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 수상

2013 교육부 - 예술교육장관상 표창

단체 소개

사물놀이 한울림 연희단 (사물놀이, 전통연희 중심의 역사적인 단체)

사물놀이한울림연희단은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양 5500회가 넘는 국내외공연을 통해 새로운 흥분과 감동의 연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으며 우리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인 음악단체로 평가 받고 있다. 그들의 예술세계는 장르를 초월하는 포괄적인 수용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속음악의 우월성을 계승하고 있어 클래식음악으로부터 팝, 재즈 등과도 다양한 협연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음악의 주도 방향인 시대와 장르의 구분을 초월한 ‘월드뮤직’의 개념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연주단체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뽕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이 펼쳐내는 음의 세계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해탈의 모습을 강렬하게 전달해 주었으며 현대인들의 잊혀진 감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K' arts in one 컴퍼니 (실용음악, 기악, 무용 중심의 프로젝트)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졸업생, 재학생 개인과 예술 단체들이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공동의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들만을 엄선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들이 모여져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한 콘텐츠에서 발현되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로 확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췄으며, 한예종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친 신선한 명인들이 진정한 한국문화콘텐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1993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설립,

대전 EXPO세계북잔치 참여-1000명 사물놀이 합동연주 부문 기네스북 등극

1995 UN 5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 UN 총회장 특별공연

1996 미국 16개주 순회공연,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문화축제 참가

1998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사물놀이공연 초청

2002 2002 FIFA World Cup KOREA and JAPAN” 오프닝 공연

2005 한 · 일 우정의 해 기념공연 “2005 한일음악제 김덕수 Meets 하야시 에데스

2007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사업 “ Nanjang in Paris 출연

김덕수 예인인생 50주년 기념공연 “길” 출연

2008 전통연희상설극장 개관기념 페스티벌 “100일간의 연희페스티벌” 기획 운영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기획 및 80회 출연

제17대 대통령취임식 행사 공연참가

2009 꿈꾸는 문화열차 “김덕수의 전통연희체험공연” 출연

2009 김덕수 솔로 콘서트(일본)

서울문화재단 청소년 아트트리 교육사업- 사물놀이 지도강사 운영(2년)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200회 출연

2010 4D국내 최최 공연 “Diglog Samulnori” -죽은나무꽃피우기 초연작 출연

2010 세계여수박람회 “전통연희 활성화 교육 사업” 지도강사(3년)

“스티브 원더 내한공연” 게스트 출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막 축하공연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200회 출연

2011 제1회 천지진동페스티벌 2011명 사물놀이 지도강사 및 공연참여

대구세계육상대회 전야제 초청공연 참가

향사 박귀희 선생 추모기념 공연출연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200회 출연

11 미국 동남부 지역 사물놀이공연 및 워크샵 및 스쿨콘서트

11 한국수교 50주년 국가 문화교류공연 참여(그리스,코트디부아르,포르투갈)

2012

01.06 KBS 희망음악회 “아리랑 변주에 의한 코리아판타지” - KBS 콘서트홀

02.25 대한민국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축하공연 - 국회의사당 광장

05~07 년버벌대장금 100회 공동제작

07.25~9.9전통어린이연회극” 전우치전” 90회 출연

01~06 전통연희상설공연 “판” 100회출연(총 780회 공연)

06.02 천지진동 페스티벌 “아리랑 아라리요” 공동기획 - 수원월드컵 경기장

09.30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대장금” 초청공연 - 수원 화성행궁

10.13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대장금” 초청공연 -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0.27~28 김덕수 광대인생 60주년 기념공연 “흥”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3

03.06~7 주한독일문화원 재개관 기념식 축하공연 - 독일문화원

04.26~27 “겨레의 혼-아! 아리랑” K' ARTS in one company 창단공연

05.02 “밀양 아리랑 대축제” 전야제 특별초청공연 - 밀양문화체육회관

05.17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공연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5.19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2013 한국전통축제 초청공연 “신명” - 춘천 소양예술농원

06.16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2013 한국전통축제 초청공연 “흥” - 춘천 소양예술농원

07.08 두드림 국토대장정 개막공연 “정전협전60주년기념 대장정”

07.18 인당 박동진 선생 10주기 추모 음악회 초청공연 -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07.20 제14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폐막식 초청공연 -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07.21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2013 한국전통축제 초청공연 “나빌레라” - 춘천 소양예술농원

07.27 제3회 천지진동 페스티벌 공동주관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대한민국 평화올림

대한민국 평화열림” 공연 2,000명 사물놀이,모듬북 지도연주 - 임진각 평화누리

09.01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축하 연주회[소리길]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中 3악장 놀이 국립관현악단 협연 - 아야소피아성당 광장무대

09.13 6.25전쟁 65주년기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초청공연 “겨레의 혼 아! 아리랑”

09.14 제3회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기념 음악회 출연

11.6 사물놀이한울림 창단 35주년 기념 공연 “온고지창신” 출연

2014

2.2 국립현대미술관 갑오년 신년맞이 지신밝기 공연

2.14,21 “일렉 트릭 사물놀이” 공연 - 홍대 KT&G상상마당

5.30 2014 아태문화유산의달 “사물놀이” 초청공연 - 워싱턴

6.1 ~7.25 전통연희금요상설공연 “콘서라마 아리랑” 10회

6.20. ~ 6.30 “한일문화교류음악회-한일 아시아오케스트라 김덕수 솔리스트협연

7.12 롯데월드 25주년 기념 “김덕수사물놀이” 초청공연

7.19 대구등플래 건립기금 자선음악회

7.23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전래동화연희극 “전우치전” 통연시민회관

8.29 재일한국상공회의소 50주년 기념 축하공연

9.6 김덕수 신명으로 두드린인생 60년 사진전 및 공연

9.14 제10회 한일축제한마당 축하공연 및 폐막식연출- 코엑스

9.14.16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음악회 협연”

9.17~1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김덕수사물놀이 초청공연

10.1 국군의 날 공식 개막길놀이 공연

10.10~12 제21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경연대회및공연체험행사)기획총괄운영

11.7 울산중구문화의전당 개관 식축하공연

12.13 주니어 천지진동페스티벌 제작/김덕수예술감독 /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최

12.15 하나은행 VIP 송년음악회 / 올릭픽공원

사물, 전통연희 파트

우리의 전통예술문화는 고유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어느 문화예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사물, 전통연희연희파트는 전통의 우수성을 보존과 함께 알리고,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국악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팀입니다.



전통연희공연 “판”



겨레의혼 아! 아리랑



전통어린이극
전우치전

무용 앙상블파트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무용수들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무용 앙상블팀은 악, 가, 무 중심의 전통무용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레파토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악앙상블 파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젊은예술안들을 주축으로 아름답지만 강한 힘이 내제된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작곡가의 완성품을 연주하는 팀이 아닌 직접 전통음악을 재해석하여 창작하는 작업을 통해 기악앙상블만의 진정성 있는 음악을 전달하고자 한다.



소리파트

소리 파트는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연희소리, 뮤지컬과 아카펠라 까지 다양한 소리를 하는 각 분야별 실력자들이 모여있습니다. 대중도 쉽게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즐거운 소리를 만들고 우리의 소리만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곡 안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한울림

Samulnori Hanullim A Non-Profit Organization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84-1 종로문화체육센터내 광화문아트홀

사물놀이부여교육원 :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329번지

담당자 : 한광희 실장

연락처 : Tel : 02-2232-7952 / Fax : 02-2232-7955 / H.P : 010-3213-0077

E-mail : kkwanghee1211@hanmail.net

활동홈페이지 : www.samulnori.xyz

www.facebook.com/samulnorihanullim

부여교육원 041-532-0190 <http://www.samulnorischool.com/>

